

대학생의 학습민첩성이 비인지적 핵심역량에 미치는 영향 -자기관리역량 및 대인관계역량을 중심으로-

유지현, 심현애*
선문대학교 교양학부

The Influence of University Students' Learning Agility on Non-Cognitive Core Competencies: Focusing on Self-Management Competencies and Interpersonal Competencies

Ji-Hyun Yu, Hyeon-Ae Sim*
Department of Liberal Arts, Sunmoon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대학생의 학습민첩성 수준이 비인지적 핵심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여 대학생의 핵심역량 개발 지원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S대학교 재학생 68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비인지적 핵심역량 측정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 개발한 온라인 기반 대학생 핵심역량 진단검사(K-CESA: Korea Collegiate Essential Skills Assessment) 중 자기관리역량과 대인관계역량을 활용하였다. 학습민첩성이 비인지적 핵심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 자기관리역량과 대인관계역량 모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역량별로 살펴보면, 학습민첩성은 자기관리역량 중 직업의식을 제외한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정서적 자기조절, 목표실행 능력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쳤다. 또한 대인관계역량의 하위역량 중 협력을 제외한 정서적 유대, 중재, 리더십, 조직이해에 학습민첩성이 유의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대학생의 비인지적 핵심역량을 증진시킬 수 있는 비교과 프로그램 지원, 대학생활지원 정책 등에 대해 제언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 of college students' learning agility on non-cognitive core competencies, and to provide implications to support development of core competencies in college students. To this end, data from 68 students attending University S were analyzed. For non-cognitive core competency measurement, we utilized self-management and interpersonal competency results from an online college student core competency diagnostic test (K-CESA) developed by Korea Research Vocational Education & Training. The analysis found that learning agility had a significant effect on both self-management competency and interpersonal competency. Learning agility had a significant impact on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emotional self-regulation, and goal performance from among the self-management competencies, and had a significant impact on emotional bonding, intervention, leadership, and organizational understanding from among the interpersonal competencies.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a comparison of program support and college-life support policies is proposed to enhance non-cognitive core competencies in college students.

Keywords : Learning Agility, Self-Management Competencies, Interpersonal Competencies, Non-Cognitive Core Competencies, K-CESA

*Corresponding Author : Hyeon-Ae Sim(Sunmoon Univ.)

email: simhyonae@hotmail.com

Received November 17, 2023

Revised December 27, 2023

Accepted February 6, 2024

Published February 29, 2024

1. 서론

현대인에게 요구되는 역량으로 변화하는 사회에 잘 대응하는 능력이 중요시되고 있다. 이러한 역량을 학습민첩성이라고 한다. 학습민첩성은 인적자원관리(Human Resource Development : HRD) 영역에서 발전된 개념으로, '개인이 처음 경험해 보거나 이전과 다른 업무 수행 환경을 만났을 때 새로운 역량을 습득하고자 하는 의지와 능력'을 의미한다[1,2].

학습민첩성의 구성요소에 대해 Lombardo와 Eichinger는 사고민첩성, 대인민첩성, 변화민첩성, 결과민첩성으로 구분한다[1]. 사고민첩성이 높은 상태는 새롭거나 복잡한 일에 매력을 느끼고, 문제를 정확하고 깊이 있게 분석하며, 복잡한 것을 단순하게 요약하는 데 능숙하다. 대인민첩성이 높은 경우에는 자신에 대한 통찰력이 높고, 자신과 관점이 달라도 협력적이고 건설적으로 인식하며, 스트레스나 압박을 잘 극복해 나간다. 변화민첩성이 높은 사람은 변화를 주는 것을 좋아하고 호기심이 많고 창의적이며, 업무역량의 향상이나 기술 습득에 관심이 많다. 결과민첩성이 높은 사람은 처음 시도해 보거나 어려운 과제에서도 성과를 창출하고, 추진력과 적응력 수준이 높다. 임창현, 위영은, 이효선은 학습민첩성의 요소로 자기인식, 성장지향, 성찰추구, 유연한 사고, 행동변화의 5가지를 제시하였다[3]. 이것을 Lombardo & Eichinger의 4가지 요소와 비교하면, 유연한 사고는 사고민첩성과 관련되고, 성찰추구와 자기인식은 대인민첩성에 해당되며, 행동변화는 변화민첩성과 연결되고, 성장지향은 지속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개념으로 추가하였다.

학습민첩성의 영향 관계를 분석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학습민첩성은 학습목표지향성[4], 메타인지[5], 경험개방성[6]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반면, 직무성과[7], 조직적 시민행동[8], 조직변화몰입[9], 조직내 성장가능성[10]의 성과변인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한편, 사회진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대학생들에게 있어서도 갖추어야 할 핵심역량이 강조되고 있다. 대학의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운영할 때도 대학의 특성을 반영한 핵심역량을 설정하여, 재학 중 핵심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공통적인 핵심역량을 진단하는 K-CESA(Korea Collegiate Essential Skills Assessment)에서는 인지적 역량으로 의사소통, 자원·정보·기술의 처리와 활용, 종합적 사고력, 글로벌역량, 비인지적 역량으로 대인관계 역량과 자기

관리 역량을 포함하고 있다[11]. 그리고 선행연구에도 대학의 교과 및 비교과 활동의 효과로 핵심역량을 측정하여 분석한 사례가 많다[12-14]. 특히, 자기관리, 대인관계 등의 비인지적 역량은 최근에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데,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국내 100대 기업 인재상 보고서에 따르면[15], 100대 기업 3곳 중 2곳이 인재상으로 책임의식(67%), 도전정신(66%), 소통 및 협력(64%) 능력을 내세우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인재상은 2018년 조사에서 중위권이던 '책임의식'이 1위로 부상한 반면, 지난 조사에서 주로 상위권에 머물렀던 전문성은 6위로 급락했다. 이처럼 문제해결력, 전문성, 창의성 등의 인지적 핵심역량에 더해 대인관계, 자기관리, 책임의식 등의 비인지적 역량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대학생들의 비인지적 역량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변인을 규명하고, 이를 촉진시킬 수 있는 지원방안이 필요한 상황인 것이다.

학습민첩성과 대학생의 역량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학습민첩성을 결과변인으로 분석한 연구, 매개효과에 대해 분석한 연구, 그리고 학습민첩성을 영향변인으로 분석한 연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학습민첩성을 결과변인으로 분석한 연구를 살펴보면, 치위생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김서연의 연구[16]에서, 대학생들은 교육 경험, 건강상태, 대학생활 만족도, 전공 만족도, 대인관계, 성격에 따라 학습민첩성이 유의미하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셸프리더십의 하위요인과 학습민첩성의 하위요인 간의 영향 관계를 분석하여, 학습민첩성 유형별로 향상시키기 위한 셸프리더십의 요인을 규명하였다. 둘째, 매개효과에 대해 분석한 연구를 살펴보면, 임경희와 이인숙은 간호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17]에서 대학생의 성취동기가 학습민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서 셸프리더십이 상당한 매개효과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셋째, 학습민첩성을 독립변인으로 설정한 연구로, 이는 학습민첩성 관련 대학생 연구에서 비중을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다. 송영선, 이희수, 임창현[18]은 대학생의 학습민첩성이 대학생활적응의 하위요소인 자기인식과 성장지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과 그 과정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가 있음을 밝혀내었다. 김승현과 최순원[19], 김다희, 최순원, 김정만[20]은 학습민첩성이 학습몰입도 전체 혹은 그 일부 요인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음을 제시하였다. 이효선[21]과 정홍인[22]은 대학생의 학습민첩성이 발휘될수록 진로준비행동이 증진된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마지막으로 성은모와 강수미[23]는 학습민첩성이 자기주도학습역량과 협력

적 문제해결역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단과대학별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다고 제시하였다. 이들 연구 중 상당수는 대학생의 개인 특성, 학교생활 적응, 진로행동과의 연관성에 대한 분석이며, 학습민첩성이 핵심역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 연구는 성은모와 김수미의 연구[23] 정도를 꼽을 수 있는데, 이 연구에서 활용한 종속변인 중 자기주도학습능력은 자기관리의 하위요소에 해당하고 문제해결능력은 자원·정보·기술의 획득 및 종합적 활용과 관련되는 인지적 영역의 일부에 해당한다.

국내 대부분 대학에서는 대학의 핵심역량에 부합하는 핵심역량 진단검사를 개발하여 실시하거나, 타대학 집단군과 비교할 수 있도록 K-CESA를 실시하여 재학생의 핵심역량 수준을 진단하고 있다. 학습민첩성이 보다 포괄적인 인지적 혹은 비인지적 핵심역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결과가 제시된다면 대학에서 학생지원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운영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K-CESA 데이터를 활용하여 대학생의 학습민첩성이 비인지적 핵심역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K-CESA 검사의 구성요소 중 비인지적 핵심역량에 해당하는 자기관리역량과 대인관계역량에 대한 영향력을 분석하는 것이다. 비인지적 핵심역량을 종속변인으로 선정한 이유는 첫째, 학습민첩성 관련 선행연구 중 인지적 영역에 대해 분석한 연구는 있으나, 비인지적 영역을 중심으로 분석한 연구는 매우 드물기 때문이다. 둘째, 최근 기업체의 인재상이 책임의식, 도전정신 등 비인지적 역량 수준이 높은 인재상으로 변화하고 있고, 대학생들은 예비 직업인으로서 대학생활을 통해 비인지적 역량을 개발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대학생의 학습민첩성은 자기관리역량에 영향을 미치는가?
- 연구문제 2. 대학생의 학습민첩성은 대인관계역량에 영향을 미치는가?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충청남도 아산시 소재 S대학교의 재학생 68명이며, 이 중 남학생은 14명(20.6%), 여학생은 54명(79.4%), 3학년은 23명(33.8%), 4학년은 45명(66.2%)

로 나타났다. 연령은 22세부터 26세로 연령의 평균은 23.23세이다. 계열은 인문사회 계열이 37명(54.4%), 예체능 계열이 5명(7.4%), 보건 계열이 12명(17.6%), 공학 계열이 14명(20.6%)으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은 Table 1과 같다.

Table 1. Sociodemographic variables of study subjects (N=68)

	Spec.	Respondents	Percentage
Gender	Male	14	20.6
	Female	54	79.4
Grade	Grade 3	23	33.8
	Grade 4	45	66.2
Age	22	23	33.8
	23	17	26.5
	24	19	27.9
	25	4	5.9
	26	4	5.9
Department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37	54.4
	Arts & Sports	5	7.4
	Public Health	12	17.6
	engineering	14	20.6
All		68	100

2.2 연구도구

2.2.1 학습민첩성

학습민첩성은 임창현 등이 개발한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3]. 학습민첩성 연구는 산업 분야에서 먼저 시작되었고, 임창현 등이 개발한 학습민첩성 척도는 기업 구성원을 대상으로 개발되었지만, 개발 목적은 핵심인재를 규명하기 위해 학습민첩성의 구성요인을 탐색하는데 있었다. 본 연구에서 해당 척도를 선택할 때, 문항 내용이 기업의 구성원에 국한되지 않고 개인의 자기인식, 성장지향성, 성찰추구 등의 내용으로 개발되어 대학생에게도 충분히 적용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본 연구에 활용하였다. 이 도구의 구성요인은 자기인식(2문항), 성장지향(7문항), 사고의 유연성(3문항), 성찰행동추구(4문항), 행동변화(5문항)이고, 총 22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원도구에서 자기인식은 3문항이었으나, '무엇이 자신의 감정과 정서에 영향을 미쳤는지 안다' 문항의 경우, 문항과 총점 간 상관계수가 낮고, 항목 제거 시 신뢰도 계수 값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서 이 문항을 삭제하고 2문항으로 산출하였다. 전체 문항의 신뢰도는 Cronbach' α = .861이었

으며, 본연구에서는 Cronbach' α =.928로 나타났다. 응답척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매우 그렇다'까지 5점 Likert로 구성하였다. 하위영역별 문항의 예와 신뢰도 계수를 제시하면 Table 2와 같다.

Table 2. Construction of the learning agility scale

Components	Question example	Number of questions	Cronbach α
Self-awareness	I am well aware of my own emotional state.	2	.595
Growth-oriented	I am very interested in growing to a higher level than I am now.	7	.824
Flexibility of thought	I also think about the invisible side of events or situations.	3	.761
Pursuing reflective action	I continually explore the root causes of success and failure.	4	.792
Behavior change	I am not afraid of failure and recognize it as part of the innovation or learning process.	5	.848
All	-	21	.928

2.2.2 비인지적 핵심역량

비인지적 핵심역량을 측정하기 위해 2006년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이 개발한 온라인 기반 대학생 핵심역량 진단검사(K-CESA: Korea Collegiate Essential Skills Assessmet)를 사용하였다[24]. K-CESA는 대학생의 핵심역량(core competency)을 측정함으로써 사회적 변화와 기업의 요구에 부응하는 인재양성을 유도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K-CESA에서 정의하는 핵심역량은 모든 직업상황에서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핵심적인 기초역량을 의미하며, 특정한 상황이나 직무에서 준거에 따른 효과적이고 우수한 수행의 원인이 되는 개인의 내적인 특성, 예컨대, 동기, 자질, 자기개념, 가치관, 태도, 스킬, 지식 등으로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다. K-CESA 진단 영역은 자기관리역량, 자원·정보·기술 활용역량, 의사소통역량, 대인관계역량, 글로벌역량, 종합적 사고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비인지적인 역량에 해당하는 자기관리역량과 대인관계역량을 사용하였다[25].

자기관리역량과 대인관계역량의 문항은 자기점검식이며,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로 5점 Likert 척도이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서 역량별 표준점수 T값으로 제시한 값을 본 연구에서 활용하였다. T점수는 표

준화된 규준체계로 평균은 50이고, 표준편차는 10으로 설정되며, T점수가 높을수록 대학생의 자기관리역량 및 대인관계역량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자기관리역량 및 대인관계역량의 척도의 구성은 Table 3과 같다.

Table 3. Construction of self-management competency and interpersonal competency scales

Components	Sub-components	Number of questions	Question type
Self-management competency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Planning and execution ability, Emotional self-regulation ability, Professional awareness	60	Self-report
Interpersonal competency	Emotional bonds, Cooperation, Mediation, Leadership, Understanding the organizations	50	Self-report

2.3 분석방법

본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해 수집된 자료의 분석방법은 SPSS 27.0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분석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주요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확인하기 위해 빈도분석과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변인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학습민첩성을 독립변인으로, 자기관리역량과 대인관계역량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단순회귀분석을 통해 영향관계를 확인하였다.

3. 연구결과

3.1 학습민첩성, 자기관리역량, 대인관계역량의 상관관계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 결과는 Table 4, 상관관계 분석결과는 Table 5에 제시하였다. Table 4에 따르면, 학습민첩성 평균은 3.26(SD=.41)이며, 자기관리역량 전체 평균은 48.97(SD=8.51)이며, 하위역량의 평균 범위는 46.57(SD=10.36, 직업의식)~48.50(SD=9.85, 목표 실행능력)로 나타났다. 대인관계역량 전체 평균은 55.10(SD=10.17)이며, 하위역량의 평균 범위는 52.96(SD=13.34, 리더십)~57.75(SD=10.57, 협력)로 나타났다.

Table 4. Descriptive statistics on main variables (N=68)

Variables and components		M	SD	All	
				M	SD
Learning agility		3.26	.41	3.26	.41
Self-management competency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47.60	10.01	48.97	8.51
	Planning and execution ability	46.97	9.86		
	Emotional self-regulation ability	48.50	9.85		
	Professional awareness	46.57	10.36		
Interpersonal competency	Emotional bonds	53.32	10.99	55.10	10.17
	Cooperation	57.75	10.57		
	Mediation	57.66	9.14		
	Lleadership	52.96	13.34		
	Understanding the organizations	53.79	10.37		

학습민첩성과 자기관리역량 및 대인관계역량 간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한 결과(Table 5), 학습민첩성과 자기관리역량 전체는 $r=.575(p<.001)$ 로 유의한 정적상관이 나타났다으며, 학습민첩성과 자기관리역량 하위역량 간 상관관계는 직업의식 $r=.088$ 부터 목표실행능력 $r=.520(p<.001)$ 까지 나타났다. 학습민첩성과 대인관계역량 전체는 $r=.466(p<.001)$ 으로 나타났다으며, 학습민첩성과 대인관계역량 하위역량 간 상관관계는 정서적 유대 $r=.297(p<.05)$ 부터 중재 $r=.489(p<.001)$ 까지 나타났다. 학습민첩성과 자기관리역량 중 직업의식을 제외한 모든 하위역량 간 상관관계는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5. Correlation between main variables

(N=68)

Variables and components	1	2	3	4	5	6	7	8	9	10	11
Learning agility	-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493***	-									
Planning and execution ability	.329**	.482***	-								
Emotional self-regulation ability	.520***	.498***	.091	-							
Professional awareness	.088	.380**	.393**	.081	-						
Self-management competency(All)	.575***	.875***	.653***	.669***	.500***	-					
Emotional bonds	.297*	.276 [†]	.221	.205	.382**	.411***	-				
Cooperation	.318**	.416***	.314**	.203	.382**	.493***	.619***	-			
Mediation	.489***	.460***	.279*	.298 [†]	.316**	.504***	.472**	.650***	-		
Lleadership	.301*	.439***	.172	.337**	.164	.452***	.503**	.409**	.326**	-	
Understanding the organizations	.432***	.549***	.391**	.493**	.330**	.662***	.371**	.570***	.540***	.402**	-
Interpersonal competency(All)	.466***	.556***	.343**	.401**	.382**	.647***	.782***	.806***	.732***	.770***	.713***

1=Learning agility, 2=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3=Planning and execution ability, 4=Emotional self-regulation ability, 5=Professional awareness, 6=Self-management competency(All), 7=Emotional bonds, 8=Cooperation, 9=Mediation, 10=Lleadership, 11=Understanding organizations, 12=Interpersonal competency(All)

* $p<.05$, ** $p<.01$, *** $p<.001$

3.2 학습민첩성이 자기관리역량에 미치는 영향

학습민첩성이 자기관리역량에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기 위해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6과 같다.

학습민첩성이 자기관리역량 전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모형 분석결과, $F=32.653$, $p<.001$ 수준에서 유의하였으며, β 값은 .575, 설명력은 $R^2(\text{adj.}R^2)=.331(.321)$ 로 나타났다.

Table 6. The impact of learning agility on Self-management competency

Variables and components	Unstandardized coefficient (B)	Standard error (S.E.)	Standardization coefficient (β)	t
Self-management competency(All)	12.030	2.105	.575	5.714***
$F=32.653(p<.001)$, $R^2(\text{adj.}R^2)=.331(.321)$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12.113	2.632	.493	4.502***
$F=21.179(p<.001)$, $R^2(\text{adj.}R^2)=.243(.231)$				
Emotional self-regulation ability	7.959	2.815	.329	2.827**
$F=7.992(p<.01)$, $R^2(\text{adj.}R^2)=.108(.094)$				
Planning and execution ability	12.580	2.545	.520	4.943***
$F=24.324(p<.001)$, $R^2(\text{adj.}R^2)=.270(.259)$				
Professional awareness	2.245	3.121	.088	.719
$F=.517$, $R^2(\text{adj.}R^2)=.008(.007)$				

** $p<.01$, *** $p<.001$

학습민첩성이 자기관리역량 하위역량별로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학습민첩성이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에 미치는 영향은 $F=12.113$, $p<.001$ 수준에서 유의하였으며, β 값은 .493, 설명력은 $R^2(\text{adj.}R^2)=.243(.231)$ 로 나타났다. 학습민첩성이 정서적 자기조절에 미치는 영향은 $F=7.992$, $p<.01$ 수준에서 유의하였으며, β 값은 .329, 설명력은 $R^2(\text{adj.}R^2)=.108(.094)$ 로 나타났다. 학습민첩성이 목표실행 능력에 미치는 영향은 $F=24.324$, $p<.001$ 수준에서 유의하였으며, β 값은 .520, 설명력은 $R^2(\text{adj.}R^2)=.270(.259)$ 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직업의식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3.3 학습민첩성이 대인관계역량에 미치는 영향

학습민첩성이 대인관계역량에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기 위해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7과 같다.

Table 7. The impact of learning agility on Interpersonal competency

Variables and components	Unstandardized coefficient (B)	Standard error (S.E.)	Standardization coefficient (β)	t
Interpersonal competency(All)	11.212	2.795	.443	4.012***
	$F=16.094(p<.001)$, $R^2(\text{adj.}R^2)=.196(.184)$			
Emotional bonds	8.581	3.307	.304	2.595*
	$F=6.732(p<.05)$, $R^2(\text{adj.}R^2)=.093(.079)$			
Cooperation	5.090	3.733	.166	1.363
	$F=1.859$, $R^2(\text{adj.}R^2)=.027(.013)$			
Mediation	11.783	2.387	.519	4.936***
	$F=24.360(p<.001)$, $R^2(\text{adj.}R^2)=.270(.259)$			
Leadership	10.531	3.924	.314	2.684**
	$F=7.203(p<.01)$, $R^2(\text{adj.}R^2)=.098(.085)$			
Understanding the organizations	11.457	2.895	.438	3.958***
	$F=15.665(p<.001)$, $R^2(\text{adj.}R^2)=.192(.180)$			

* $p<.05$, ** $p<.001$, *** $p<.001$

학습민첩성이 대인관계역량 전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모형 분석결과, $F=16.094$, $p<.001$ 수준에서 유의하였으며, β 값은 .443, 설명력은 $R^2(\text{adj.}R^2)=.196(.184)$ 로 나타났다.

학습민첩성이 자기관리역량 하위역량별로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학습민첩성이 정서적 유대에 미치는 영향은 $F=8.581$, $p<.05$ 수준에서 유의하였으며, β 값은 .304, 설명력은 $R^2(\text{adj.}R^2)=.093(.079)$ 로 나타났다. 학습민첩성이 협력에 미치는 영향은 $F=1.859$ 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민첩성

이 중재에 미치는 영향은 $F=24.360$, $p<.001$ 수준에서 유의하였으며, β 값은 .519, 설명력은 $R^2(\text{adj.}R^2)=.270(.259)$ 로 나타났다. 학습민첩성이 리더십에 미치는 영향은 $F=7.203$, $p<.01$ 수준에서 유의하였으며, β 값은 .314, 설명력은 $R^2(\text{adj.}R^2)=.098(.085)$ 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학습민첩성이 조직이해에 미치는 영향은 $F=15.6653$, $p<.001$ 수준에서 유의하였으며, β 값은 .438, 설명력은 $R^2(\text{adj.}R^2)=.192(.180)$ 로 나타났다.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학습민첩성이 비인지적 핵심 역량에 해당하는 자기관리역량과 대인관계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의 결과를 중심으로 몇 가지 사항을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대학생의 학습민첩성은 자기관리역량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관리역량의 하위요인별로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계획수립 및 목표실행 능력, 정서적 자기조절능력에 대한 영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학생의 학습민첩성 수준이 높으면 본인의 학습능력에 대해 자신감을 갖고 적절한 동기를 이끌어 내며, 학습하는 과정에서 효율적인 학습방법을 잘 찾아내고 끈기 있게 노력하고 학습 자원을 잘 활용하는 자기주도적 학습역량을 발휘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대학생의 학습민첩성이 자기주도 학습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성은모와 강수미의 연구결과와 같다[23]. 정서적 자기조절 측면에서는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감정이나 기분을 조절하여 정서적인 안정을 유지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적절한 전략을 활용하여 자신의 감정에 방해받지 않고 문제해결에 집중하는데 있어서 학습민첩성이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계획수립 및 목표실행 차원에서는 일반적으로 목표를 분석하여 계획을 수립하는 일,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자기 관리와 시간 관리하기, 단계별로 목표달성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고 진행과정을 수시로 검토하여 기간 내에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학습민첩성이 높으면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자기관리역량의 하위역량 중 직업의식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21,22]에서 학습민첩성이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고한 결과를 고려할 때 대학생의 학습민첩성이 직업의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 업무에 곤란을 겪고 있는 동료를 도와주기, 업무능력을 높이기 위해 고급 훈련과정에 참여하여 자기 발전을 도모하기, 업무상 취득한 기술을 조직의 해를 끼치는 목적으로 사용하기 않기 등의 대학생의 직업의식에 대해서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대학생의 학습민첩성은 대인관계역량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인관계역량의 하위역량별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정서적 유대를 비롯하여 특히 중재, 리더십, 조직 이해에 대한 학습민첩성의 영향력이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대학생의 학습민첩성이 높으면 정서적 유대 관계가 원만하게 유지되는데,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여 신뢰와 친밀감을 형성하고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능력이 뛰어난 것을 의미한다. 중재의 관점에서는 나와 다른 사람 혹은 다른 사람들 간의 의견차이나 갈등을 원만하게 조정하여 합의를 이끌어내는 능력을 잘 발휘한다고 볼 수 있다. 리더십에도 유의한 영향력을 보여주는데, 자신의 의견과 의도를 정당화하고 남을 설득시키고 기존의 절차나 정책에 대해 책임감을 갖고 도전하기 위해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고 표현하는 능력에 학습민첩성이 아주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을 뜻한다. 조직이해의 차원에서는 학습민첩성이 높으면 개인 및 팀의 업무를 이해하고 조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해서 시스템을 변화시키거나 새로운 설계를 하는 능력을 월등하게 발휘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은 학습민첩성이 회사원들의 조직적 시민행동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확인한 연구의 결과와 맥락을 같이 한다[8]. 그런데 대인관계역량의 하위역량 중 협력에 대해서는 학습민첩성의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 학습민첩성의 구성요소인 대인민첩성이 다른 사람과 일하는 과정에서 서로 이견이 있더라도 협력적이고 건설적으로 인식한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1](Lombardo & Eichinger, 2000), 학습민첩성이 대학생의 협력에 대한 인식에 어느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학습민첩성과 협력 간의 상관관계는 $r=.318(p<.01)$ 로 유의한 정적상관이 나타났다. 그렇지만 협력에 대한 학습민첩성의 영향력은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본 연구는 대학생의 비인지적 핵심역량에 학습민첩성이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 연구로서, 학습민첩성이 비인지적 핵심역량인 자기관리역량과 대인관계역량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에게 요구되는 핵심역량으로서 자기관리역량과 대인관계역량을 향상시키고자 한다면, 학습

민첩성 수준을 관리하고 향상시킬 수 있도록 교육과정, 교수학습방법, 학생상담 등의 차원에서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에 대해서는 제언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학습민첩성의 교육적 실천방안과 및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의 비인지적 핵심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자기인식과 성장지형 등 학습민첩성의 내용을 적용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학생의 핵심역량 영향요인을 분석한 연구들은 대체적으로 비교과 프로그램을 통해 자기관리, 대인관계, 창의성 등의 핵심역량이 향상된다고 보고하고 있다[26,27]. 특히 학습민첩성이 자기관리역량 및 대인관계역량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본 연구결과를 고려할 때, 각 핵심역량 중 취약한 역량을 확인하고 이를 증진시킬 수 있는 영향요인을 고려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기존 프로그램의 내용을 개선, 통합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자기인식과 관련하여 대학에서는 성격, 학습스타일, 진로적성, 행동특성 등의 다양한 검사를 실시한다. 이러한 검사의 결과를 해석한 프로파일을 제공하고, 그에 더하여 자신의 상태를 인식하고 성장가능한 도전목표를 찾아 시도해볼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코칭, 워크숍, 컨설팅으로 연결하는 것이 좋다. 입학 전, 신입생, 재학생, 졸업을 준비하는 등의 단계마다 높은 수준의 목표로 수정하고 성장해갈 수 있도록 e-학생 포트폴리오 등을 통해 그간의 경력개발 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대학생의 비인지적 핵심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교과목에서 유연한 사고와 성찰 등의 학습민첩성을 촉진하는 교수-학습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대학의 전공 및 교양 교과목은 대학의 핵심역량에 근거해 개발, 운영된다. 대학생의 자기이해, 성장지향성, 사고의 유연성 등의 학습민첩성을 촉진시킬 수 있도록 교양 교과목을 신설하거나 진로교과목을 통해 스스로 진로(일)의 목적과 의미를 찾고, 부여할 수 있는 활동을 제공하는 것도 그 일환이다. 그러나 대학교육에서 더욱 광범위하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전공 및 교양 교과목 전반의 교수-학습 방법에 변화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수업에서 소통과 과제해결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학생중심 활동을 적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으로 토의와 토론, 팀기반학습, 문제중심학습, 프로젝트중심학습, 서비스러닝 등을 도입할 수 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과제해결을 하게 된다. 이때 정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솔루션의 가치를 강조하는 것이 중요함을 인지시킨다. 또한 학생들이 의사결정 및 행동의 근거를 합리적으로 설명하도록 안내하고, 타인의 의견과 평가를 위해 피드백을 수용하여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이와 같이 교수자가 전문성을 살려 구성한 과제를 중심으로, 학생의 적극적인 수업참여, 자기성찰, 학습성과에 대한 동료와 교수자 피드백 등을 할 수 있도록 교수-학습 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셋째,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이다. 대학생의 학습민첩성이 자기관리역량과 대인관계역량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분석대상이 적어,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K-CESA의 경우 유료 검사이기 때문에, 개인이 검사에 참여할 수 있는 접근성이 낮은 편이다. 향후에는 K-CESA 참여자수를 늘려 연구결과를 일반화할 수 있도록 연구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자기관리역량과 대인관계역량 등 비인지적 역량에 초점을 두어 분석하였으나, 학습민첩성이 인지적 역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K-CESA의 인지적 역량에 해당하는 의사소통, 자원·정보·기술의 처리와 활용, 종합적 사고력, 글로벌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면, 본 연구에서 제시한 비인지적 역량에 대한 영향력 분석과 더불어 대학생 대상 교과 및 비교과 활동을 위한 설계·운영에 유용한 전략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다.

References

- [1] M. M. Lombardo, R. W. Eichinger, "High potential as high leaders", *Human Resource Management*, Vol.39, No.3, pp.321-329, 2000.
- [2] N. H. Kim, *Examining influencing and Performance Factors Related To Learning Agility as the Growth Potential of Employees*. Ph.D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pp.12-17, 2019.
- [3] C. H. Im, Y. E. Wee, H. S. Lee,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the learning agility scale", *The Korean Journal of Human Resource Development*, Vol.19, No.2, pp.81-108, 2017.
DOI: <https://doi.org/10.18211/kjhrdq.2017.19.2.004>
- [4] G. A. Drinka, *Coaching for learning agility: The importance of leader behavior, learning goal orientation, and psychological safety*. Ph.D dissertation, Columbia University, 2018.
- [5] S. Y. Jang, N. R. Kim, "The effects of cognition, meta-cognition, and motivation on the ill-structured problem solving phase",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16, No.9, pp.1-20, 2016.
DOI: <https://doi.org/10.22251/ilcci.2016.16.9.933>
- [6] M. A. Kim, *The Relationships among Learning Agility, Individual Variables, and Job Variables and Moderation Effects of Positive Error Management Climate of Manufacturing Workers*, Ph.D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pp.115-117, 2018.
- [7] C. L. Bedford, *The role of learning agility in workplace performance and career advancement*. Ph.D dissertation, The university of Minnesota, Minnesota, USA, 2011.
- [8] H. I. Jeong, S. Sung, "The effect of learning agility on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Focused on the mediating effects of work engagement", *The Journal of Lifelong Education and HRD*, Vol.14, No.1, pp.113-144, 2018.
DOI: <https://doi.org/10.35637/klehrd.2018.14.1.006>
- [9] T. J. Kim, H. S. Lee, "A Study on the Influence of Learning Agility on Commitment to Organizational Change and Moderating Effect of Job Autonomy", *Journal of Agricultural Education and Human Resource Development*, Vol.48, No.1, pp.27-46, 2016.
DOI: <https://doi.org/10.23840/agehrd.2016.48.1.27>
- [10] N. Dries, T. Vantilborgh, R. Pepermans, "The role of learning agility and career variety in the identification and development of high potential employees", *Personnel Review*, Vol.41, No.3, pp.340-358, 2012.
- [11] M. S. Jin, Y. M. Son, H. J. Chu, "A Study on Development Plan of K-CESA for College Education Assessment", *The Journal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Vol.29, No.4, pp.461-486, 2011.
- [12] H. H. Kim, "A Study on the Effects of Collaborative Learning in 4-year University in Korea", *The Journal of Korean Teacher Education*, Vol.436 No.4, pp.205-233, 2019.
DOI: <https://doi.org/10.24211/tjkte.2019.36.4.205>
- [13] J. Y. Park, "Development and Effectiveness Analysis of Team Based learning (TBL) for Students Majoring in Skin Care - Focus on Problem Solving Competency and Cooperative Self Efficacy", *Journal of Korea Entertainment Industry Association*, Vol.19, No.3, pp.469-477, 2019.
DOI: <https://doi.org/10.21184/ikeia.2019.10.13.7.469>
- [14] Y. W. Sur, H. A. Sim, "Development and Effectiveness Analysis of Problem Based learning for Students Majoring in Visual Design", *Bulletin of Korean Society of Basic Design & Art*, Vol.20, No.2, pp.159-171, 2019.
DOI: <https://doi.org/10.47294/KSBDA.20.2.13>
- [15] Korea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Press release on talent report for top 100 companies*, Korea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2023 [Internet]. [cited 2023 Nov 10], Available From: https://www.korcham.net/nCham/Service/Economy/aapl/KcciReportDetail.asp?SEQ_NO_C010=2012093609

[2&CHAM_CD=B001](#) (accessed Nov. 10, 2023)

- [16] S. Y. Kim, "Effect of Self-Leadership in Dental Hygiene Students on Learning Agility", *Journal of Industrial Convergence*, Vol.20, No.12, pp.171-178, 2022.
- [17] K. H. Yim, I. S. Lee, "The effect of achievement motivation on learning agility of nursing students: The mediating effect of self-leadership",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27, No.1, pp.80-90, 2021.
DOI: <https://doi.org/10.5977/ikasne.2021.27.1.80>
- [18] Y. S. Song, H. S. Lee, C. H. Im,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in the relationship between learning agility and university life adaptation of university students in non-metropolitan area", *The Journal of Vocational Education Research*, Vol.37, No.6, pp.1-20, 2018.
DOI: <https://doi.org/10.37210/JVER.2018.37.6.1>
- [19] S. H. Kim, S. W. Choi, "The Effect of Learning Agility on E-learning Flow in University Student in the Department of Military Studies", *Culture and Convergence*, Vol.45, No.3, pp.557-571, 2023.
DOI: <https://doi.org/10.37210/JVER.2018.37.6.1>
- [20] D. H. Kim, S. W. Choi, J. M. Kim, "A Study on the Effect of College Students' Learning Agility on E-learning Flow and Satisfaction", *Culture and Convergence*, Vol.44, No.4, pp.1183-1202, 2022.
- [21] H. S. Lee, "The influence of university students' learning agility on the career preparation behavior -Mediating effect of academic challenge",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10, No.1, pp.197-204, 2019.
DOI: <https://doi.org/10.15207/JKCS.2019.10.1.197>
- [22] H. I. Jeong, "The Meaning of Work for Local University Students and the Impact of Learning Agility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s", *Journal of Humanware*, Vol.6, No.1, pp.63-82, 2023.
DOI: <https://doi.org/10.23182/human.2023.6.1.63>
- [23] E. M. Sung, S. M. Kang, "The Effect of Students' Learning Agility on Self-Directed Learning Competency and Collaborative Problem Solving Competency According to the College in Higher Education", *Journal of Corporate Education and Talent Research*, Vol.24, No.3, pp.1-28, 2022.
- [24] M. S. Jin, S. Y. Lee, H. K. Ryu, C. S. Park, S. Lee, D. S. Choi, J. P. Ok, A Study on Selection of Basic Vocational Skills among University Students and Development of Questions, Ministry of Education and Human Resources Development,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2007.
- [25] Korea Research Vocational Education & Training, Korea College Student Core Competency Diagnosis System, 2022[Internet]. Available From: <https://www.kcesa.re.kr/index.do> (accessed Sep. 15, 2023)
- [26] J. Y. Kim, "The relationship between extra-curricular programs and Core competency - Focusing on the

difference in core competencies according to participation in extra-curricular programs", *The Journal of Liberal Arts*, Vol.8, No.1, pp.15-40, 2021.

- [27] S. H. Baek, "The Effects of experience of Extracurricular Programs on the Interpersonal Competencies of University Students", *Korean Journal of General Education*, Vol148, No.1, pp.259-282, 2020.

유 지 현(Ji-Hyun Yu)

[정회원]



- 2005년 2월 : 숙명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교육학과 (상담·교육심리) (교육학 석사)
- 2012년 8월 : 숙명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교육학과 (상담·교육심리) (교육학 박사)
- 2014년 3월 ~ 현재 : 선문대학교 교양학부 부교수

<관심분야>

학생역량 진단, 교수-학습 프로그램, 평생교육

심 현 애(Hyeon-Ae Sim)

[정회원]



- 2002년 12월 : University of Sydney 교육공학전공 (교육학석사)
- 2008년 8월 : 한양대학교 교육공학 (교육학박사)
- 2014년 3월 ~ 현재 : 선문대학교 교양학부 부교수

<관심분야>

교수법, 교육프로그램 개발, 역량개발 교육